

39 | 선박 건조 근로자에서 발생한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 | | | | | | | |
|----|---|----|-----|----|--------------|-------|----|
| 성별 | 남 | 나이 | 50세 | 직종 | 강선 건조 또는 수리업 | 업무관련성 | 높음 |
|----|---|----|-----|----|--------------|-------|----|

1 | 개 요

○○중공업(주) 소속 근로자 유○○은 12년째 도장작업을 하고 있으며, 좌측 무릎 통증으로 인하여 2006년 8월 5일 MRI 촬영결과 위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2 | 작업내용 및 환경

○○중공업은 선박을 건조하는 회사로 유○○은 1994년 2월 1일부터 12년째 블록도장작업을 하였다. 블록내부의 협소한 공간의 이물질, 두께가 맞지 않는 부분 등을 기어 다니면서 헤라나 끌칼로 제거한 뒤 에어로 깨끗하게 소지 작업을 한 다음에 도장 스프레이 작업 및 로울러나 붓을 이용하여 규정 도막을 추가하는 것이 주작업이고, 바닥 작업하는 동안에는 위보기 엎드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을 굽히고 기어 다니는 자세 등으로 반복 작업을 하고 블록 내부 조명이 부족하여 작업하다 무릎, 어깨, 발목, 정강이 부분이 부딪힌 적이 많다고 하였다. 바닥 작업은 총 작업 중 40%정도를 차지하는데 무릎을 꿇거나 기어다니는 작업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정도 된다고 하였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보통 오후 6시까지이다. 유○○의 작업은 준비작업 2시간, 실작업 6시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근로자 유○○은 오른손잡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작업 시에는 주로 바닥에 좌측 무릎을 꿇고 작업하는 것이 관찰되었다(좌측 90%, 우측 10% 정도 사용한다고 함).

3 | 의학적 소견

근로자 유○○는 키는 165cm, 몸무게는 65kg정도이고, 과거의 질병력은 특이소견 없었다. 사내 건강증진센터에는 2000년 11월 29일에서 30일까지 좌측 무릎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 2003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수진자료상에서는 무릎 관련 상병명은 없었다. 2006년 5월부터 반월상 연골 절제술 전(2006. 8.11)까지 주 2회, 1회 1시간씩 스포츠 댄스 동호회에서 활동하였는데 초급단계로서 걸음마 수준이었다고 하였다. 다른 스포츠는 한 적이 없고 가끔 낚시, 등산을 하는 정도였다. 2006년 7월 10일 작업 중에 좌측무릎을 논지에 좀 심하게 부딪혀 현상의무실의 소염 진통 연고를 쉬는 시간마다 계속 바르고 집에서는 온열치료기로 치료했으나 7월 18일에는 좌측 무릎에 통증 및 부종으로 ○○정형외과에서 X-선 촬영했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였다. 이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계속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2006년 8월 5일 MRI촬영결과 ‘좌측 슬관절 부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을 받고 2006년 8월 11일 ○○정형외과에서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현재 작업에 복귀하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4 | 결 론

근로자 유○○은

- ①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확진되었고,
- ② 슬관절에 영향을 미칠만한 취미(스포츠 댄스) 활동을 하였으나,
- ③ 과거 12년간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상태에서 많은 시간동안 작업을 수행하여 무릎에 퇴행성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작업과 또 작업 중 외상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었던 점, 단순 방사선 촬영 상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무릎의 퇴행성 골관절염을 동반한 좌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작업에 의해 우측 무릎도 퇴행성 변성이 동반되어야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우측에 비해 좌측이 퇴행변성에 있어 저명하게 차이가 있는 이상 소견을 보인다면 업무관련성은 낮거나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었다.